



유한진
(주)우성사료 부장 양계PM·축산기술사

양계 사료산업의 금년도 결산 및 내년 전망

1. 2007년 양계사료 결산

1) 최근 6년간 양계사료 생산현황

2002년부터 양계사료 생산량을 살펴보면

2002년에 4,053,000톤으로 2001년 대비 4.6% 성장하였고, 2003년 3,907,000톤(-3.6%), 2004년 3,836,000톤(-1.8%)으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에 4,203,000톤(+9.6%), 2006년에 4,267,000톤(+1.1%), 2007년에는

표1. 최근 6년간 양계사료 및 전체사료 판매현황

(단위:천톤)

연도	양계사료		전체사료		양계사료 비율
	생산량	전년비 증감	생산량	전년비 증감	
2002년	4,053	4.6%	15,602	5.6%	26.0%
2003년	3,907	-3.6%	15,257	-2.2%	25.6%
2004년	3,836	-1.8%	14,751	-3.3%	26.0%
2005년	4,203	9.6%	15,079	2.2%	27.9%
2006년	4,267	1.1%	15,475	2.6%	27.6%
2007년	4,393	3.0%	15,818	2.2%	27.8%
07vs04	+557	14.5%	+1,067	7.2%	

표2. 최근 4년간 산란종계 입식수 및 사료량

연도	산란종계 입식수		산란종계사료	
	입식수	전년비 증감	생산량(톤)	전년비 증감
2004년	457,700	7.1%	25,901	-6.8%
2005년	420,500	-8.0%	27,605	6.6%
2006년	428,670	1.9%	28,130	1.9%
2007년(8월까지)	290,200	8.9%	19,565	12.3%

3.0% 증가한 4,393,000톤(추정치)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였다.

양계사료가 전체 사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2004년 사이의 26.0% 수준에서 2007년 27.8%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료시장의 증가보다 양계사료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3년의 고병원성 AI 발생이후 양계산물의 시세가 호황을 누리면서 시설확충 등으로 사육수수가 크게 증가한 때문이며, 이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언급하겠지만, 육계, 산란계 구분없이 전 부분에서 현재의 불황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사료생산량 증가가 나타난다.

최근 6년중 가장 사료가 적게 나갔던 2004년을 기준으로 2007년 사료량을 비교해 보면 전체사료시장은 7.2% 증가하였을 뿐인데, 동기간에 양계사료 분야는 14.5%가 증가하였다.

2) 품목별 현황

가. 산란종계 입식수 및 산란종계사료

2003년에 427,290수 입식되었던 산란종계는 2004년에는 7.1% 증가한 457,700수가 입식되었다. 이후 부화장간 쿼터제를 유지하면서 2005년과 2006년에는 크게 감소한 420,500

수, 428,670수가 입식되었다. 좋은 난가를 좀더 오래 지속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소비감소, 환우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저난가가 지속되어도 병아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요인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난가에 비해 높은 병아리 시세로 인해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쿼터제 해제를 요청하고, 새로운 품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2007년에 산란종계 쿼터제는 사라진 셈이다.

표2에서 보듯이 2007년 8월 까지 산란종계 입식수는 290,200수로 전년 동기간 대비 8.9% 증가하였다. 산란종계사료(육용종계사료는 제외)도 2007년 1~8월 사이에 전년 동기간 대비 12.3% 증가한 19,565톤이 생산되었다. 현재의 추세라면 2007년 산란종계 생산량은 2006년의 28,130톤 보다 크게 증가한 31,000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육추사료 및 산란사료

잠재력에 비해 실제로 분양된 실용계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추사료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육추사료는 2004년에 2003년 보다 크게 감소한(-12.7%) 193,000톤이 생산되었으

표 3. 최근 4년간 산란사료 품목별 생산현황

연 도	육추사료(천톤)		산란사료(천톤)	
	1~9월	전년비 증감	1~9월	전년비 증감
04년	193	-12.7%	1,292	-4.0%
05년	236	22.7%	1,423	10.1%
06년	222	-6.1%	1,461	2.7%
07년	228	2.7%	1,453	-0.6%
07vs04	+35	18.1%	+161	12.5%



나 2005년 1월~9월 사이에 2004년보다 22.7% 성장한 236,000톤이 생산되었다.

2006년 1월~9월에는 2005년보다 6.1% 감소한 222,000톤이 생산되었고, 2007년 1~9월(추정치)에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228,000톤이 생산되었다. 2006년에 육추사료가 감소한 것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실시한 병아리의 제한생산과 2006년 봄철에 산란중계의 생산성 저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년 대비 1~9월 대비 2007년 동기 간을 비교해 보면 약 18.1% 증가하였다.

산란사료의 경우 2005년 1월~9월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1,423,000톤이 생산되었으며, 2006년 1월~9월은 2005년 대비 다시 2.7% 증가한 1,461,000톤이 생산되었다. 2006년에 육추사료는 2005년보다 6.1%가 감소하였으나 산란계 사료는 오히려 2.7%가 증가하였다. 병아리 생산을 제한하였음에도 산란계 사료가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노계의 증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환우를 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계를 도태하지 않고 계속 사육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7년 1~9월 사이의 산란계 사료는 전년과 유사하여 난가에 있어서 2006년보다 좋아질 수 없는 데이터를 보여준다.

최근 4년 사이 가장 적은 생산량을 보인 2004년을 기준으로 2007년 1~9월의 산란사료량을 살펴보면 동기간 대비 12.5% 증가하였다. 아울러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비가 인상되면서 농가수익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 한차례 인상된 양계사료는 이후 3차례나 더 인상되어 약 80~90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산란계 수당 평균 113g을 섭취하고 도태까지 평균산란율이 80%, 파란등 퇴란율이 7%라고 가정할 때, 계란 개당 약 12.2~13.7원의 원가상승을 유발한다. 이는 계란가격이 동일할 경우 30,000수 농가에서 월간 약 900만원의 이익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다. 육용중계 및 육계 현황

금년에 양계의 여러 생산물중 가장 약세를 보인 것은 육계시장일 것이다. 표4에서 보듯 2004년부터 육용중계 분양수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이다. 2007년 중계 분양은 금년 8월까지 4,231,000수가 분양되어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2004년 대비 41.5%가 증가한 600만수를 넘을 것이다.

중계사료 데이터도 2007년 1~9월 사이에 전

표 4. 최근 4년간 육용중계 및 육계사료 현황

연 도	중계분양(천수)		중계사료(천톤)		육계사료(천톤)	
	연누계	전년비 증감	1~9월	전년비 증감	1~9월	전년비 증감
04년	4,323	9.7%	167	-10.2%	1,191	-0.8%
05년	5,064	17.1%	191	14.5%	1,344	12.9%
06년	5,337	5.4%	207	8.8%	1,338	-0.5%
07년(8월까지)	4,231	14.6%	221	6.3%	1,473	9.2%
07vs04			+54	32.3%	+282	23.7%

년 동기간 대비 약 6.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대비 32.3%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에는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종계사료는 8.8% 증가하였으나, 육계사료는 오히려 0.5%가 줄어들면서 그나마 다소 높은 육계시세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종계사료는 6.3% 증가한 반면 육계사료는 9.2% 증가한 자료를 보이고 있다. 육계사료 생산량 역시 2004년을 기준으로 2007년에는 23.7%로 크게 증가하여 최근의 육계시세 약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불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05년 봄부터 사료요구율 향상의 경쟁이 치열화 되면서 육계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최근 육계시세 하락과 사료가격 인상에 반해 오히려 사료 요구율은 후퇴하는 양상이다. 육계시세 하락의 여파는 토종닭과 삼계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동반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토종닭과 삼계 계열업체의 자금을 압박하고 있다.

2. 2008년 양계사료 전망

산란계 농장의 경우 2004년~2005년 사이에 많은 이익을 얻으면서 농가경영에 여유가 생기고, 자금여력이 좋아지면서 시설확충등 사육규모를 너무 빠르게 경쟁적으로 늘여온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듯 축산업 평균 증가율(04년 대비 07년 7.2% 증가)의 두배나 상회(04년 대비 07년 14.5% 증가)하는 양계사료 생산량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미 불황은 사전에 예고되었으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잠시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경기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는 농가도 많은 듯 하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불황은 쉽게 견디지 않을 것 같다.

육계업 또한 장기간의 약세와 2007년 상반기의 불황으로 인해 손실의 규모가 확대대고 있으며, 자금력이 약한 계열사 주체의 경영악화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종계감축이나 쿼터제를 부활하는 것이 시급하나 계열업 주체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종계 감축뿐 아니라 원종계 감축도 병행해야만 현재의 불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계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도 수입 닭고기의 증가를 염려하여야 하는 것이 육계업의 현실이다.

가. 육추사료

산란종계 입식수와 산란종계사료가 최근 2년 사이에 조금씩 증가하면서 2008년 육추사료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료가격인상과 계란가격 급락으로 수익이 더욱 악화되면 산란계 수수 감소와 입추지연 등이 발생하여, 병아리 생산량을 감축할 경우 육추사료는 감소할 것이다.

이는 현재 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기우에 그치기를 희망하나, 병아리 수수가 줄지 않고는 불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산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자조금이 더욱 활성화 되어 광고와 홍보로 소비가 큰폭으로 살아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원해 본다.



나. 산란사료

2008년의 난가전망이 2007년 보다 좋아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사료가격 인상으로 생산원가의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미 계란 개당 생산원가가 10원 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현재의 곡물가격 추세라면 연말 전에 다시 사료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란생산 원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2/4분기에 분양된 병아리가 생산에

가담하는 2007년 10월 이후부터 2008년 봄철 사이에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난가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중 소비가 비교적 원활한 12월 전후와 3,4월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 노계군이 많은 상황이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계군의 도태만이 농가의 수익악화를 막아줄 것이다. 또한 적절한 노계도태가 이루어져 총 산란계 사육수수가 현재의 5,700여만수에서 적어도 5,300만수 이하로 조



절되어야 난가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의 산란계 사료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 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종계사료

현재 육용종계의 감축과 원종계의 쿼터제 부활뿐만 아니라 원종계의 감축까지 병행하여야만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만 줄이고 상대방이 줄이지 않을 경우를 염려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경우 - 시장흐름에 맡겨 둘 경우 - 에 입을 피해는 매우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다. 쓰러지는 자는 물론 살아남은 자도 상처를 많이 입을 것이다.

계열업체의 현명한 합의를 기대해 본다. 2008년 육용종계 사료량은 2007년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보지만 2007년에 분양된 수수를 감안할 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사료량이 늘어난다고 좋아할 일 또한 아닌 상황이다.

라. 육계사료

2005년에 크게 증가한 후 정체를 보인 육계사료 시장은 2007년에 다시 9.2%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육용종계 숫자가 증가하면서 육용병아리 생산잠재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육계 계열화 회사의 외형 키우기가 경쟁적으로 진행되면서 도계시설 증가, 사육시설증가, 자체 종계확보 등으로 전체적인 입추수수가 증가되었으나, 2008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또는 기대해 본다.

1년전 본지에서 2007년 시장을 전망할 때 육계사료 시장은 커지면서 계육시세는 어두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 맞아 들어간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속쓰러운 것은 업계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중소규모 농장의 동참에 관계없이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감축에 앞장선다면 외형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것을 2004년과 2005년에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육계계열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남이 모르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블루오션 시장이 아님을 감안할 때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그런 와중에도 친환경 축산사료(유기사료 및 항생제 무첨가 사료)는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학교급식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육추사료, 산란계 사료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란종계사료는 상반기에는 약간 증가하고 하반기에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계업의 오랜 불황으로 육용종계 및 육계사료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또 줄어들어야만 한다.

그동안 틈새 시장이던 토종닭과 백세미 시장의 외형이 점점 커졌으나 금년에 큰 손실을 보면서 2007년에는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양계업을 오래동안 지속해온 농장의 입장에서 불황은 다음에 올 호황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가장 큰 생존전략일 것이다. 2006년부터 꾸준히 이야기 하였듯이 무리한 투자로 곤경에 처하기보다 자금계획을 철저히 하여 조심스럽게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만간 불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에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뒤에는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